

보도시점 2026.7.16.(목) 06:00
< 7.16.(목) 석간 > 배포 2026. 7. 15.(수)

남미 통상협정 공청회 개최

- 아르헨티나, 우루과이 통상협정 추진 관련 우리 업계 의견수렴 -

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, 이하 산업부)는 7월 16일(목) 오전 11시 서울 무역센터에서 「한-아르헨티나·한-우루과이 통상협정 관련 공청회」를 개최하였다.

* (일시) 2026.07.16.(목) 11:00-12:00 / (장소)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18호

이번 공청회는 「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통상절차법”) 제7조에 따라 통상협정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수렴 목적으로 개최되었다.

아르헨티나는 핵심광물·세일가스 등 풍부한 자원*과 중남미 GDP 3위·인구 4,700만의 시장을 보유한 국가이며, 우루과이는 남미 물류 허브이자 정치·사회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남미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이다. 이번 공청회에는 남미 진출기업,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무역협회, KOTRA,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지역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아르헨티나, 우루과이 통상협정의 기대효과, 고려 사항 등 의견을 개진하였다.

* 아르헨티나는 리튬(세계 3위), 몰리브덴(세계 9위), 은(세계 11위), 세일가스(세계 2위) 등 보유

회의에 참석한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“아르헨티나, 우루과이 통상협정 추진으로 남미 신흥경제국으로의 시장 다변화와 국가별 강점을 활용한 자원·공급망 협력이 가능할 것”이라고 강조하며, “정부가 다각적인 관점에서 남미 통상협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 관점에서 애로 및 정책적 제언을 적극적으로 제기해달라”고 참석자들에게 요청하였다.

산업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-아르헨티나·한-우루과이 통상협정 추진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통상협정정책관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	책임자	팀 장	김선애 (02-2100-1370)
		담당자	사무관	장현태 (044-203-5736)



참고 1

한-아르헨티나 · 한-우루과이 통상협정 공청회 개요

1. 일시 및 장소

- ’25.7.16(목) 11:00~12:00, 서울 COEX 318호

2. 공고

- 행정절차법에 따라 2주전 관보 게재(7.2(목)), 메일로 참석신청 및 의견접수

3. 진행 순서

- 개회사, 주제 발표, 패널 발언, 참석자 의견청취, 폐회사 順

시 간	주 요 내 용	발표자
11:00~11:03 ('3)	개회사	통상협정정책관
11:03~11:09 ('6)	• 한-아르헨티나·한-우루과이 통상협정 개요 및 추진계획	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
11:09~11:29 ('20)	•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발표	대외경제정책연구원
11:29~11:59 ('30)	• 패널 발언 및 참석자 의견청취·질의응답	패널/참석자
11:59~12:00 ('1)	폐회사	통상협정정책관

4. 패널 토론자

연번	성명	소속	비고
1	예상준	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	발표
2	조성대	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	패널
3	전우형	KOTRA 무역투자조사실장	패널
4	김종진	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장	패널
5	문한필	전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	패널
6	권기수	한국외대 포르투갈어과 교수	패널
7	장재량	현대차 상무	패널